

# 2010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2010. 6. 14 제65호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윤형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범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 목 차 >

### 요약

- I. 대내외 여건 변화 및 서울경제 현황
  - II. 서울의 2/4분기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
  - III. 2010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 IV. 시사점 및 정책 제안
- 부록: 2010년 2/4분기 주요 조사결과

## 요 약

###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 경기회복 속도는 둔화될 전망

2010년 1/4분기 국내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8.1% 성장한 것을 비롯해 세계 경제 역시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건전성 문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하반기 경기회복 속도는 둔화될 전망이다. 2010년 들어 서울의 산업 생산과 소비는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4월 자본재 생산 증가율이 2009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반전되고, 대형소매점 판매액 역시 증가폭이 둔화되어 하반기 서울경제의 회복 속도 역시 조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0년 1/4분기 중 서울의 취업자 수는 2년 만에 처음으로 0.2% 증가했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오히려 3.8% 감소하여 청년층 취업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 체감경기가 다소 주춤한 반면 기업 체감경기는 소폭 개선

서울시민들의 체감경기는 다소 둔화되고 있다. 2010년 2/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기준치(100) 이하인 99.2로 3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그러나 미래생활형편전망지수, 고용전망지수, 소비지출전망지수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업황실적지수와 업황전망지수 등 서울 기업의 체감경기는 2개월 연속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2/4분기 업황전망지수는 103.9로 4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업황실적지수는 95.0으로 기준치를 하회하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보다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3/4분기 고용전망지수는 답보 상태로 나타나 서울지역의 고용문제가 여전할 것으로 우려된다.

### 하반기 서울경제 성장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

2010년 하반기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2.7%로 전망된다. 하반기 중 민간소비가 다소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여 서비스업과 소비 위주인 서울경제의 성장률은 상반기보다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서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이 되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울시는 기존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경쟁력의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회복 기조가 청년층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과 여건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반기 이후 국내적으로 출구전략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 차원에서도 그 동안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되었던 각종 재정사업 및 재정지출 등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합리화 및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 I. 대내외 여건 변화 및 서울경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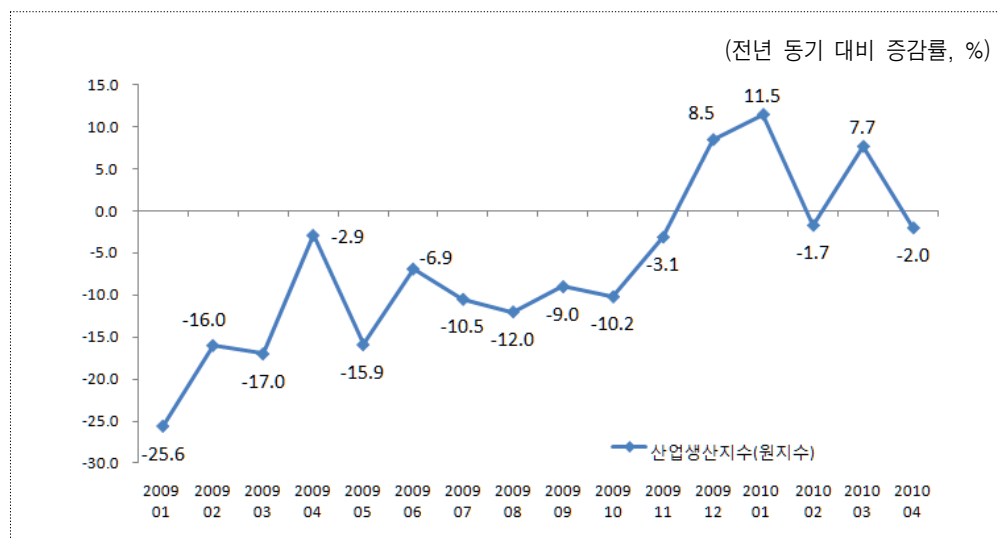
### 경기회복세 속에 남유럽국가의 재정 악화 등 각종 리스크 부각

- 2010년도 상반기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는 모두 경기회복세를 시현
  -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세계경제 전망보고서'를 통해 2010년 세계경제가 1월 전망치보다 0.3%p 상향조정된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중국(10.0%), 인도(8.8%) 등 아시아 신흥국가들이 세계경기 회복을 주도
  - 2010년 1/4분기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8.1%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
  
- 그러나 4월 그리스를 시작으로 남유럽국가들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
  - 국제금융펀드의 운용지표로 활용되는 MSCI 선진국 지수가 2010년 5월 전월 대비 8.7% 하락하고, 달러/유로 환율이 6.5%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 5월 피치의 스페인 신용등급 하향조정에 이어 최근에는 동유럽의 헝가리 채무 불이행 가능성 언급되는 등 유럽국가들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
    - 이에 유럽연합은 '재정안정기금'(European Stabilization Mechanism) 설립에 합의하는 등 위기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
  
- 한편, 천안함 사태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금융시장에 다시 부각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
  - 5월 중 원/달러 환율은 전월 대비 4.1% 상승하고, KOSPI는 5월 말 1600선 붕괴

-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5월 중 6.2조 원에 달하는 등 대내외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

### 상반기 중 서울의 생산·소비는 회복세를 유지했으나 증가 폭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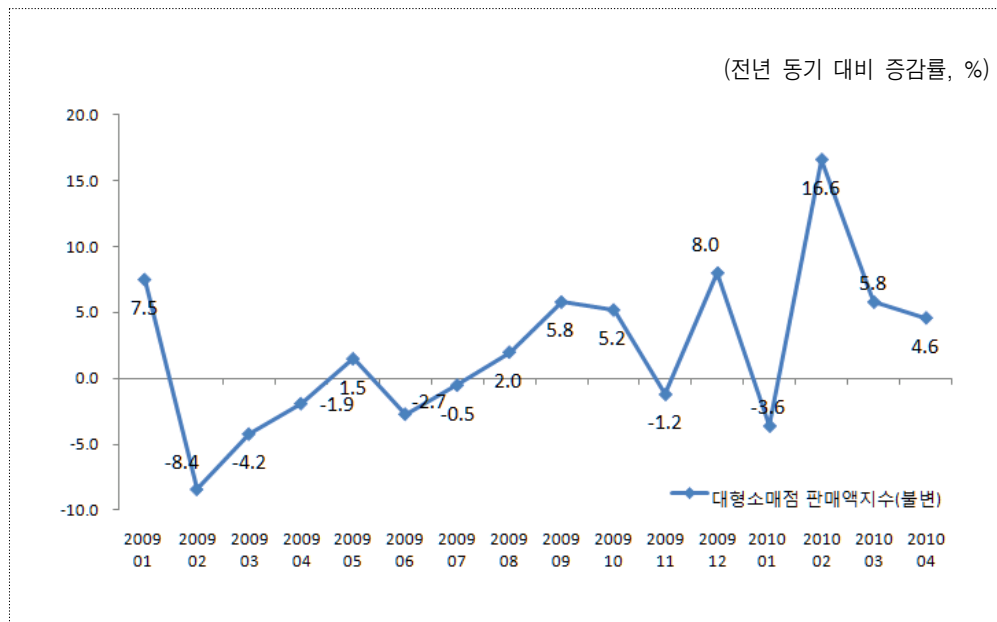
- 서울의 산업생산은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지속되었지만, 성장 탄력은 점차 약화되는 조짐
  - 서울의 산업생산은 2010년 1/4분기 중 전년 동기 대비 5.6% 성장하여 작년 4/4분기 성장률 -1.7%를 크게 상회하였으나,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0% 하락하여 혼조세를 시현
  - 산업생산의 구성요소인 중간재와 소비재 생산은 4월 중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8.1%, 10.6% 상승
  - 반면, 4월 중 자본재 생산은 2009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여 전년 동월 대비 42.9% 감소



자료: 통계청

[그림 1] 서울의 산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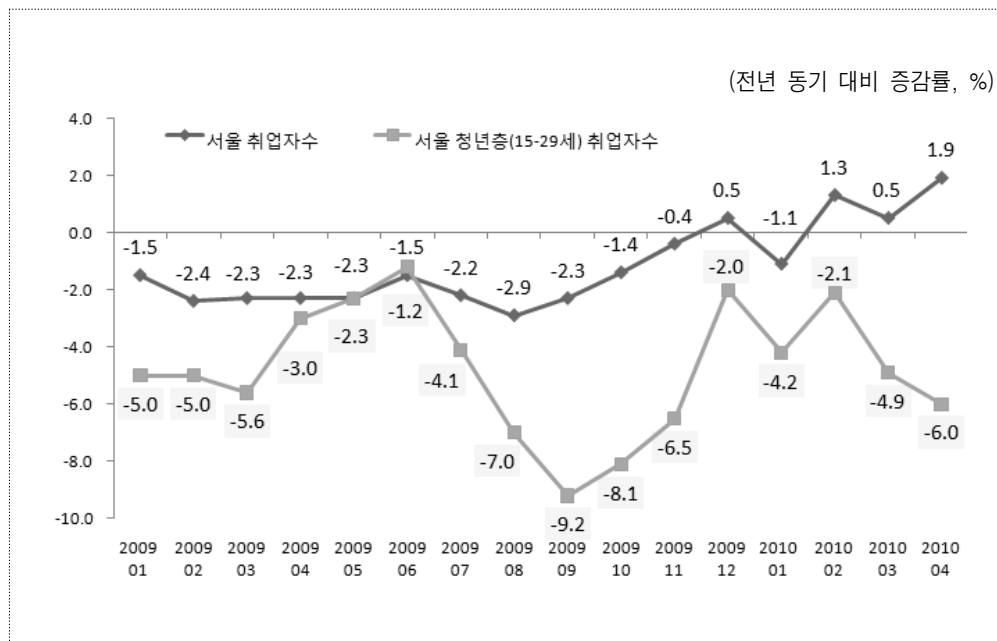
- 소비의 경우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다소 둔화
  - 2010년 4월 중 서울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4.6%로 3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전월 대비 1.2%p 하락
  - 2010년 1/4분기 중 대형 소매점 판매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5.6%로 전분기 대비 1.7%p 증가 폭 확대
    - 이는 백화점 판매액이 2009년 3/4분기 이후, 대형마트 판매액은 2009년 4/4분기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
  - 서울의 비중이 높은 전국의 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도 2009년 3/4분기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증가 폭이 점차 확대
    - 2010년 1/4분기 전년 동기 대비 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0.2% 증가



자료: 통계청

[그림 2] 서울의 대형 소매점 판매

- 고용의 경우 서울의 취업자 수는 늘어났으나, 청년층의 취업난은 심화
  - 2010년 4월 중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하여 2009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2010년 1/4분기 중 서울의 취업자 수도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
  - 반면, 4월 중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6.0% 감소
  - 특히 1/4분기가 상반기 취업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취업자 수는 1/4분기 중 3.8% 감소
  - 2010년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2009년 비해 축소되고, 민간부문 일자리도 경기회복 속도에 비해 더디게 진행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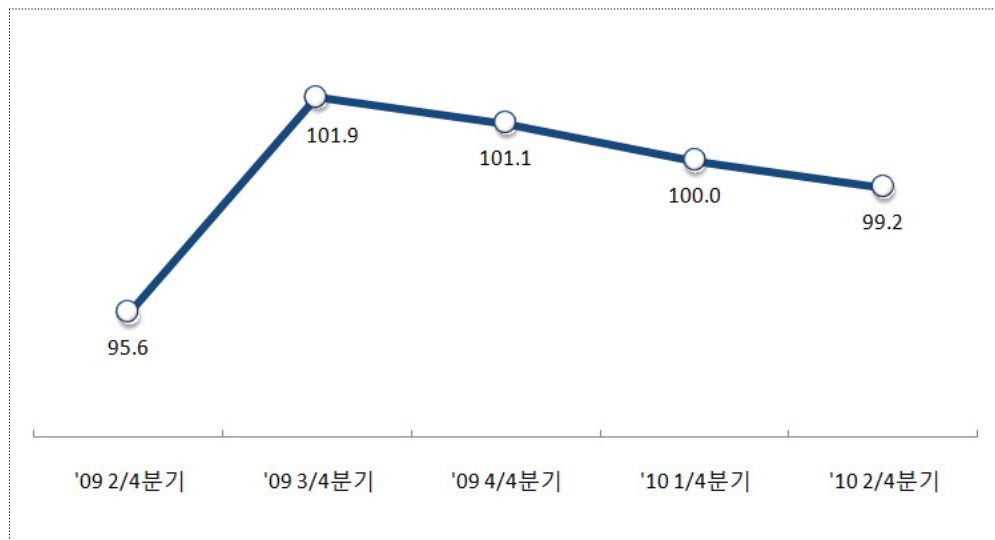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그림 3] 서울의 취업자 수

## II. 서울의 2/4분기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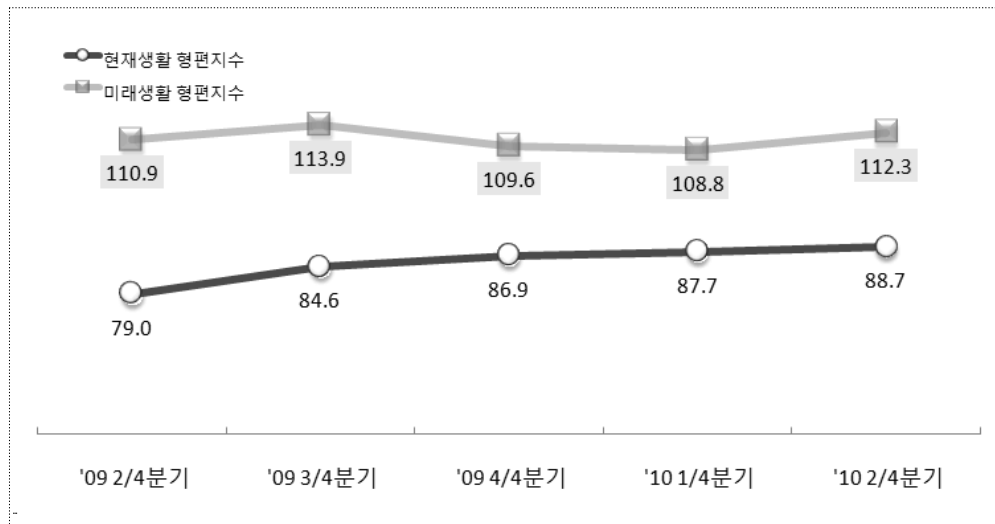
### 서울의 소비자 체감경기 다소 주춤

- 2010년 2/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소폭 감소하여 기준치(100) 이하로 하락
  - 서울시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0년 1/4분기 100.0에서 2/4분기 99.2로 감소
  -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2009년 3/4분기 101.9로 정점을 기록한 뒤 3분기 연속 소폭 하락하는 추세
  - 하지만 최근 4분기 내내 기준치에 근접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한 태도는 중립적인 것으로 분석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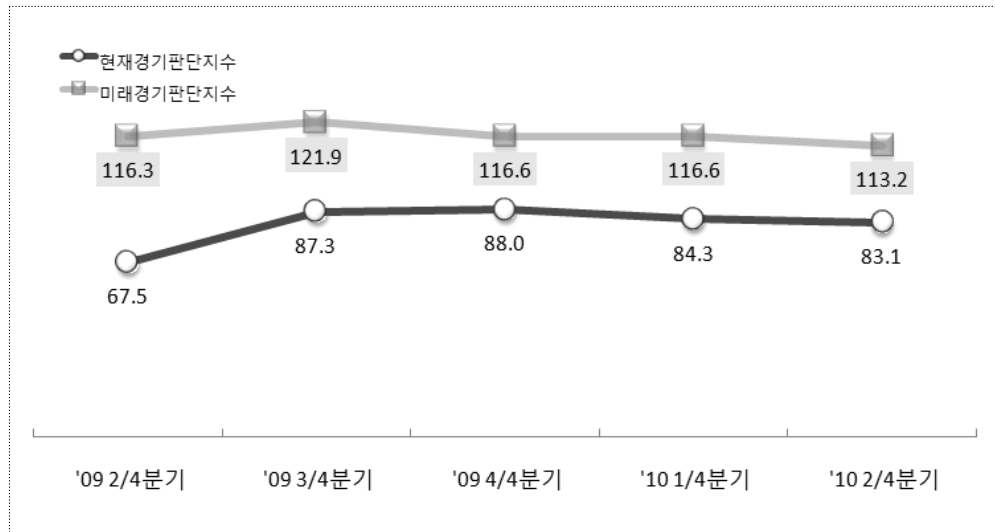
-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는 모두 상승
  - 2010년 1/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 대비 1.0p 상승한 88.7,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 대비 3.5p 상승한 112.3을 기록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2008년 4/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보다 낮은 수준
  - 「미래생활형편지수」는 3분기 만에 전분기 대비 상승으로 전환하여 생활형편 개선에 대한 기대감 반영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 서울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침체된 상황
  -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83.1을 기록하여 2009년 4/4분기 이후 2분기 연속 하락하여 현재 서울지역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침체되었음을 시사
  - 그러나 2010년 2/4분기 「미래경기판단지수」는 113.2를 기록하여 기준치(100)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1년 후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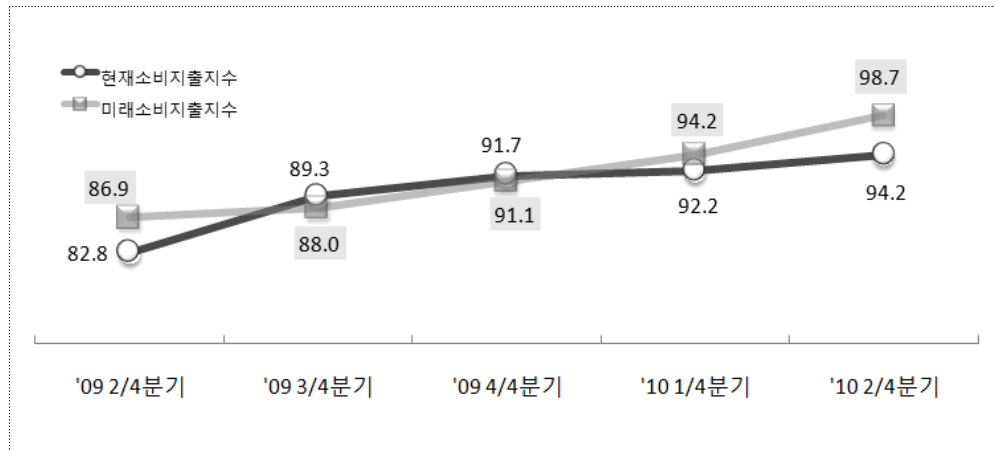




[그림 6]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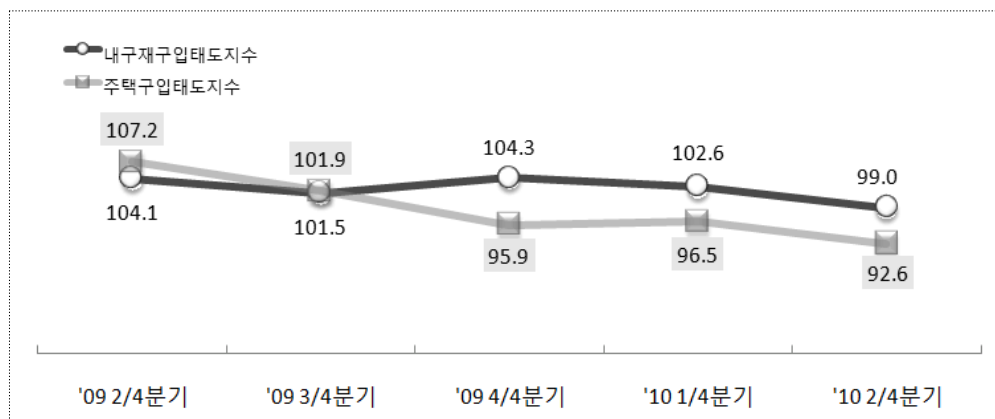
### 소비지출지수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

- 서울의 소비지출지수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전반적인 소비심리 개선 기대
  - 2010년 2/4분기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 대비 2.0p 상승한 94.2,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 대비 4.5p 상승한 98.7 기록
    -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 모두 2008년 4분기 이후 상승세를 유지
  -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 조사 결과 `교육/문화비(114.4)`, `교통/통신비(102.0)`, `주거비(99.9)` 등의 순으로 지출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
    - 모든 품목의 소비지출 전망이 1/4분기보다 상승하여 전반적인 소비지출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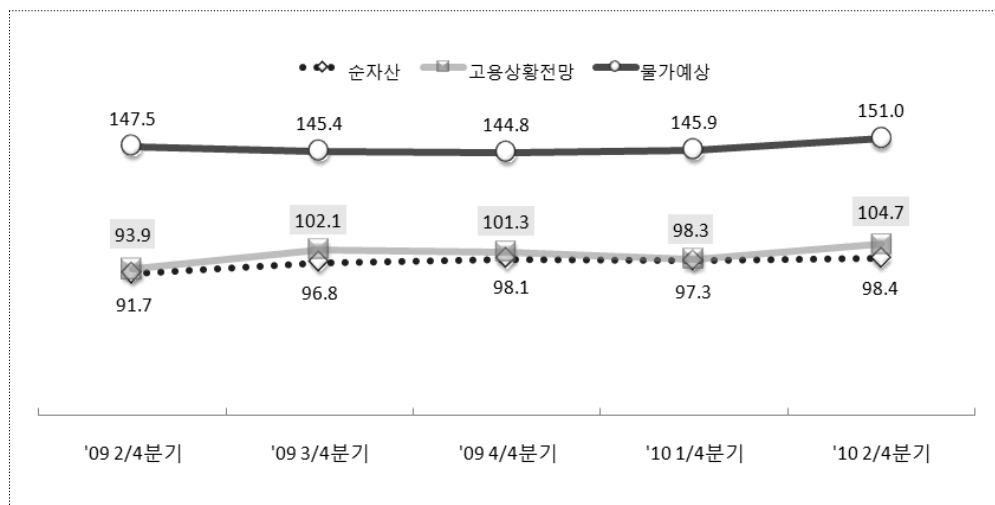
[그림 7]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 한편 2010년 2/4분기 서울의 「내구재구입태도지수」와 「주택구입태도지수」는 모두 기준치(100) 이하로 하락
  - 서울의 2010년 2/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2010년 1/4분기보다 3.6p 감소한 99.0을 기록
  - 동 지수가 기준치(100) 이하로 하락한 것은 2009년 2/4분기 이후 처음
  - 2/4분기 「주택구입태도지수」는 92.6으로 1/4분기보다 3.9p 감소하여 2009년 2/4분기부터 주택구입에 대해 태도가 보수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시사



[그림 8] 서울의 내구재 및 주택 구입태도지수

- 향후 서울의 경제 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과 물가 불안 심리가 병존하는 상황
  - 2010년 2/4분기 서울의 「순자산지수」는 98.4로 2010년 1/4분기보다 1.1p 상승하고, 「고용상황전망지수」는 전분기보다 6.4p 상승한 104.7로 조사가 시작된 2008년 4/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여 경제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을 시현
  - 「물가예상지수」는 2010년 1/4분기보다 5.1p 상승한 151.0을 기록하여 물가에 대한 불안 심리를 반영
  - 동지수가 2009년 4/4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전분기 대비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나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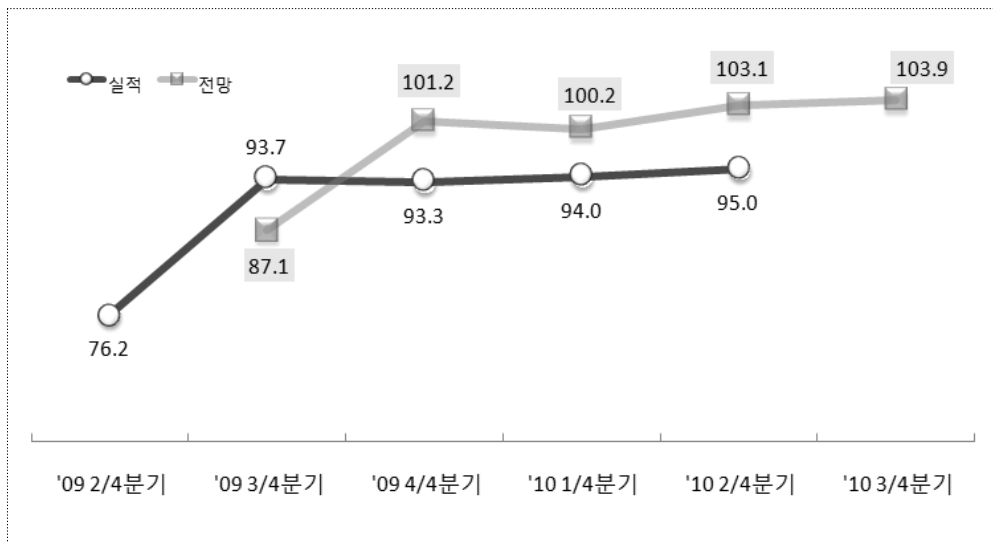


[그림 9] 서울의 순자산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 물가예상지수

### 서울의 기업 체감경기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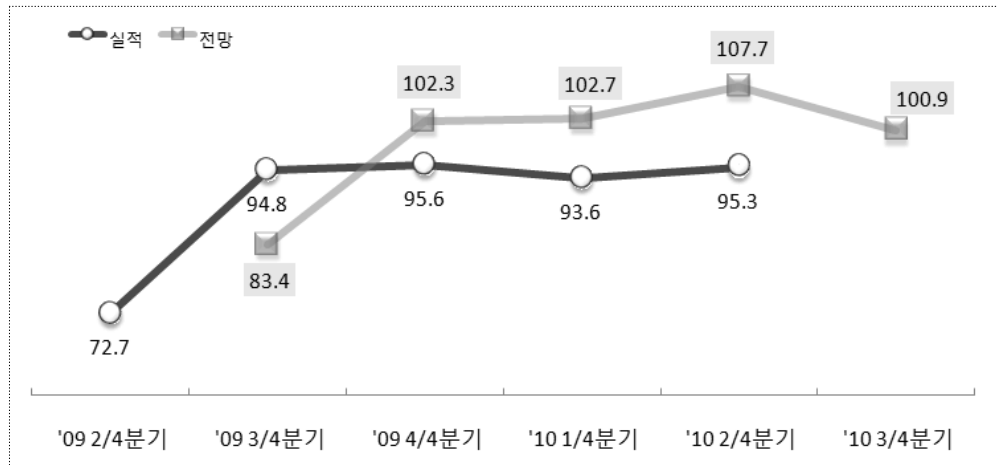
- 2010년 2/4분기 서울의 기업 체감경기는 소폭 증가했으나, 경기 회복 기대감에 비해 체감경기의 회복 정도는 아직 높지 않은 수준

- 서울의 2010년 2/4분기 「업황실적지수」는 95.0으로 전분기보다 1.0p 증가하여 기업의 경영 여건이 소폭 개선되었음을 시사
- 향후 기업의 업황실적 전망을 나타내는 「업황전망지수」는 3/4분기 103.9로 전망됨에 따라 2/4분기 전망치보다 0.8p 상승할 것으로 조사
- 「업황전망지수」는 4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상회한 반면, 「업황실적지수」는 기준치를 하회하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보다 체감경기의 회복이 더딘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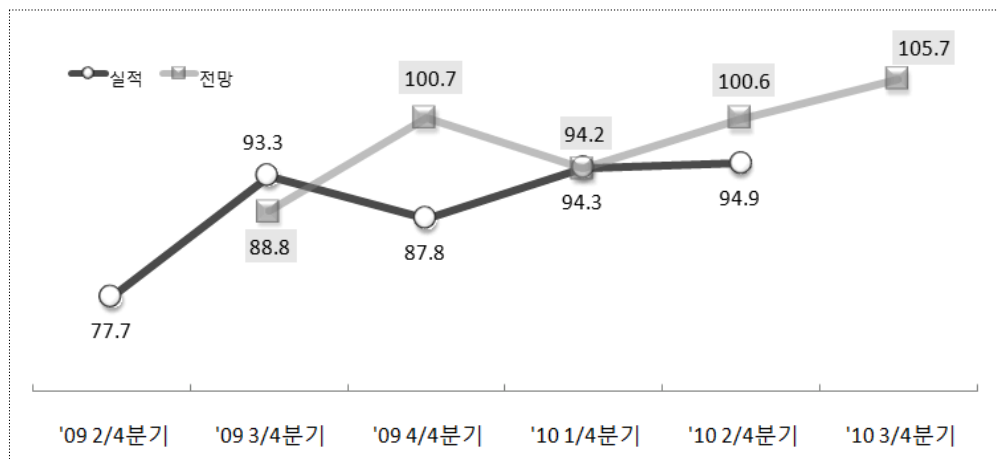
[그림 10] 서울의 업황지수

- 2010년 2/4분기 서울의 「제조업 업황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 업황전망지수」는 상승
- 「제조업 업황실적」은 95.3으로 전분기 대비 1.7p 상승하였고, 「업황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6.8p 하락



[그림 11] 서울의 제조업 업황지수

- 비제조업 부문은 업황실적과 업황전망 모두 전분기 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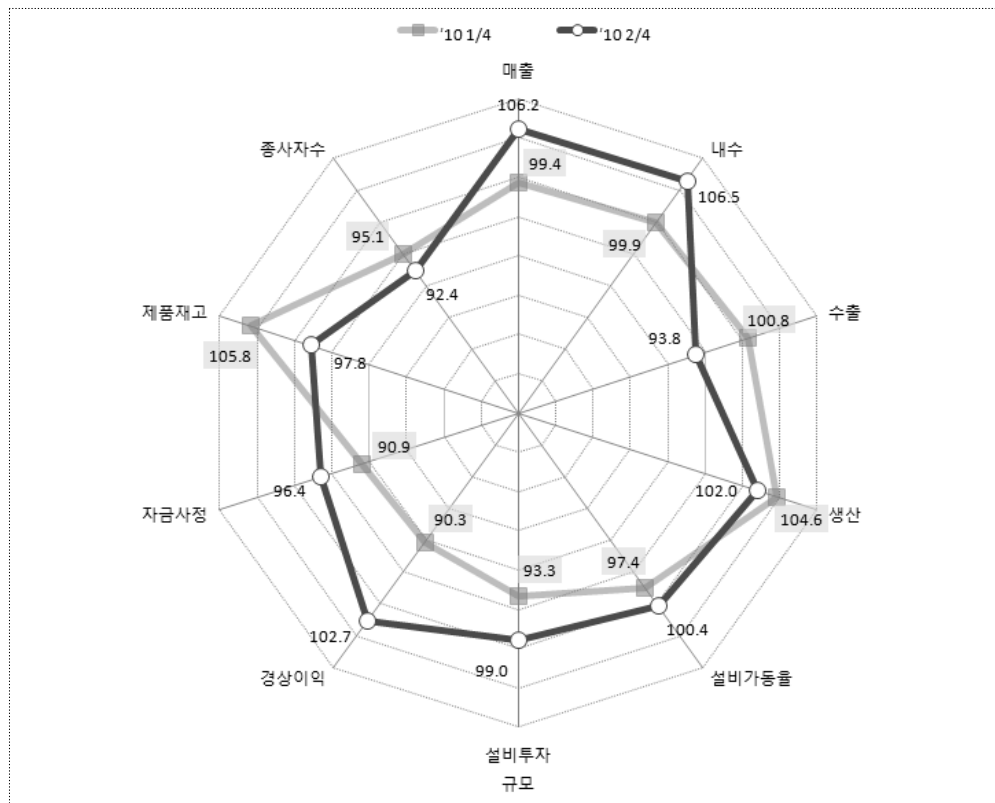


[그림 12] 서울의 비제조업 업황지수

- 서울 소재 기업의 매출, 내수, 설비 가동률, 설비 투자 규모 등의 실적은 개선

- 매출 부문의 실적지수는 2010년 1/4분기 대비 6.8p 증가한 106.2를 기록
  - 「업황실적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내수는 106.5로 전분기 대비 6.6p 증가한 반면 수출은 93.8로 전분기 대비 7.0p 감소하여 전반적인 실적 개선이 더디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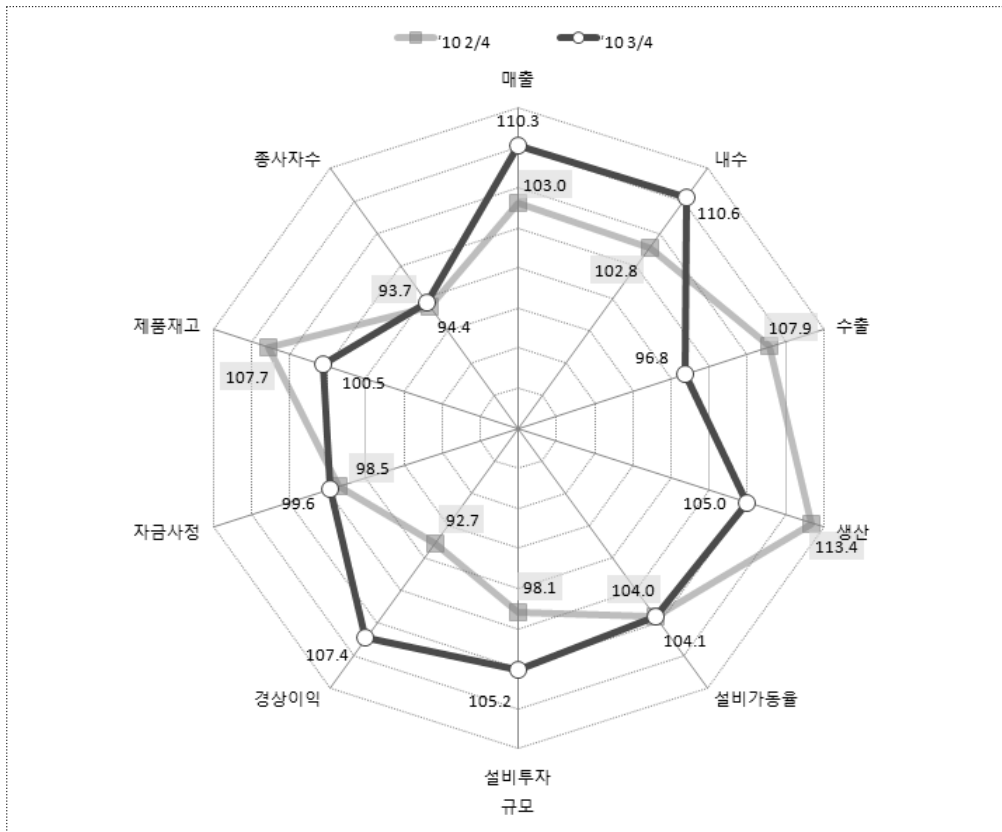
- 기업의 경영 여건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고용 여건은 악화된 것으로 조사
- 전분기 대비 경상이익, 자금사정, 설비 가동률 및 설비 투자 규모가 상승하고, 제품 재고가 감소하는 등 주요 경영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종사자 수는 전분기 대비 2.7p 감소



[그림 13] 서울의 각 부문별 실적 지수

- 서울소재 기업은 2010년 3/4분기에 매출, 내수, 경상이익, 설비 투자 규모 등에서 개선될 것으로 전망
- 3/4분기에도 역시 수출 감소분과 내수 증가분의 상계에 따라 매출과 생산의 개선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조사
- 내수 부문 지수는 전분기 대비 7.8p 상승한 110.6을 기록한 반면, 수출은 11.1p 하락한 96.8을 기록하여 수출이 부진 할 것으로 전망

- 3/4분기 고용 전망은 2/4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조사되어 하반기에도 서울 지역의 고용 여건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종사자 수 전망지수는 전분기보다 0.7p 상승한 94.4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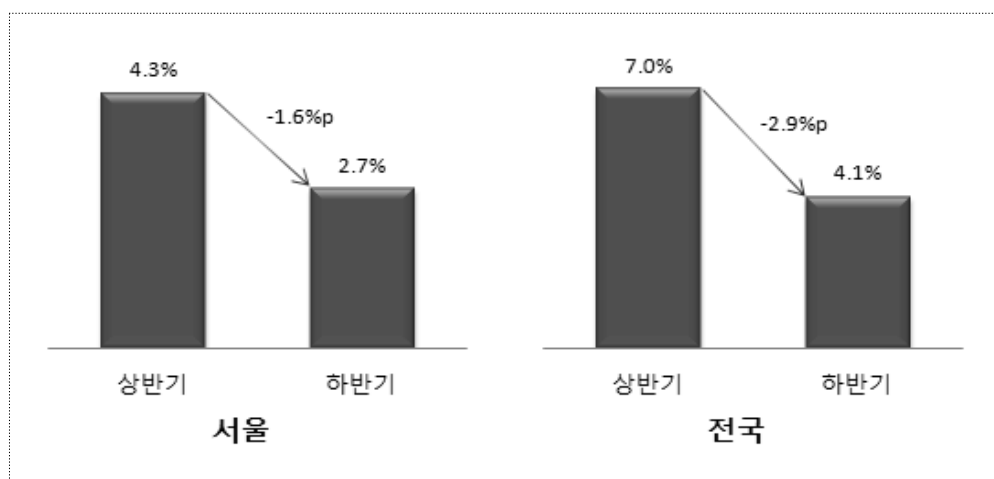


[그림 14] 서울의 각 부문별 전망 지수

### Ⅲ. 2010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 2010년 하반기 서울경제 성장률은 2.7%로 전망

- 2010년 상반기 서울경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4%대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2% 후반으로 낮아질 전망
  -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4.3%에서 하반기 2.7%로 1.6%p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서비스업과 민간소비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의 경제구조 특성상 서비스업과 소비지출의 회복세 둔화가 성장률 둔화의 주 요인
  - 그러나 서울의 하반기 경제성장률 둔화 폭 -1.6%p는 전국의 -2.9%p보다는 낮은 수준
    - 전국의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7.0%에서 하반기 4.1%로 2.9%p 하락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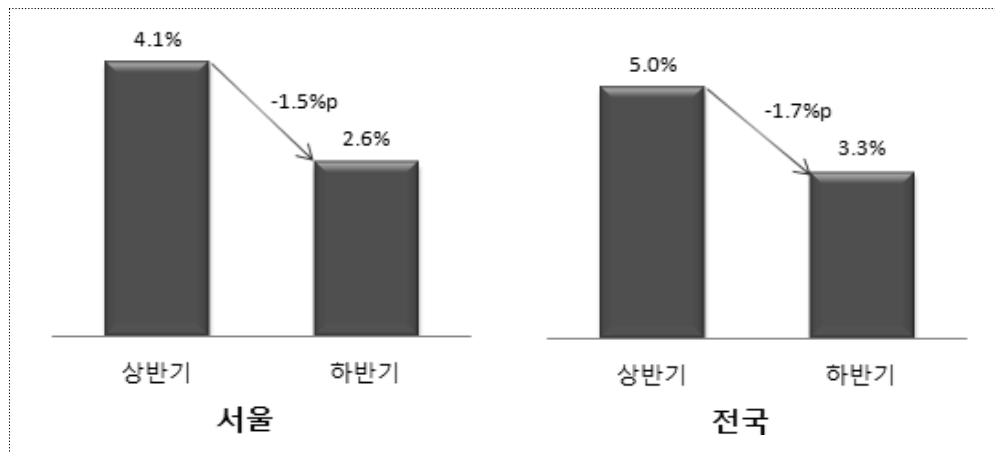


주: 서울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한국은행·KDI·SERI 전망치 평균

[그림 15] 2010년 서울 및 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 2010년 하반기 서울의 민간소비지출은 2.6% 증가할 전망
  - 서울지역의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으나 소비지출 규모의 증가 속도와 폭이 조정을 받으며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
  - 2/4분기에도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실적과 전망이 각각 94.2와 98.7로 모두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하반기 소비심리 개선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
  - 이에 따라 하반기 서울의 민간소비 지출규모 역시 증가 폭이 하향 조정되어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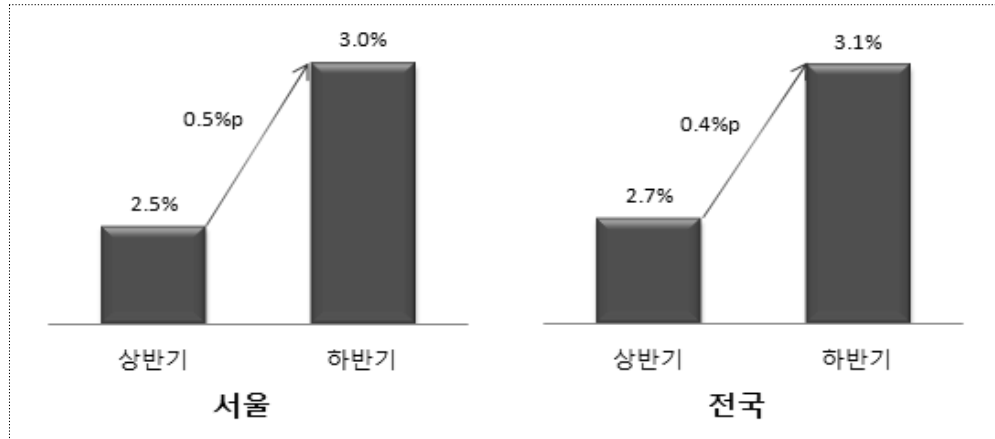


주: 서울은 서울시장개발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한국은행·KDI·SERI 전망치 평균

[그림 16] 2010년 서울 및 전국의 소비 전망

- 서울의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상반기의 2.5%보다 높은 3.0%로 전망
  - 공공요금 및 임금인상 등이 하반기 물가오름세를 주도할 가능성
  - 경기회복세 지속으로 그동안 억제되었던 도시가스, 전기,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정체되었던 임금도 상승 폭이 확대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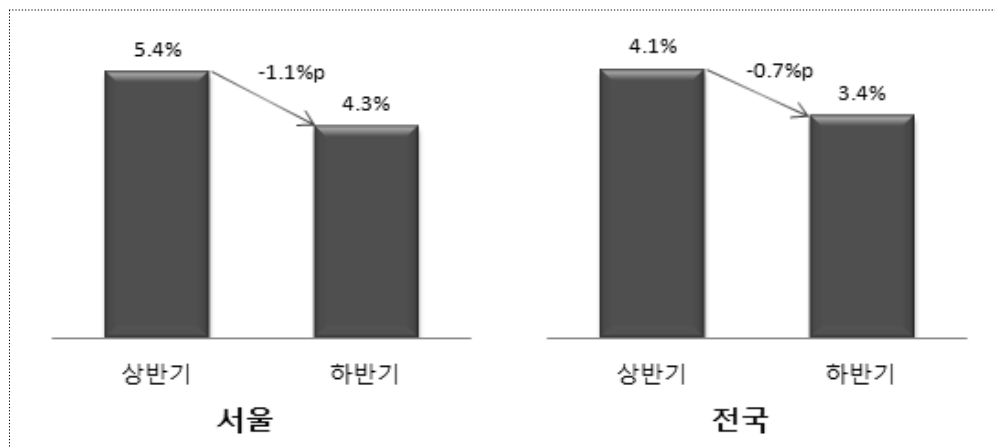
- 반면, 환율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은 물가상승 압력을 일정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



주: 서울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한국은행·KDI·SERI 전망치 평균

[그림 17] 2010년 서울 및 전국의 물가상승률 전망

- 2010년 하반기는 상반기 경제성장 효과가 고용시장에 반영되어 실업률이 다소 낮아진 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서울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고용전망지수」의 개선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어 하반기 고용시장의 빠른 개선은 힘들 것으로 판단



주: 서울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한국은행·KDI·SERI 전망치 평균

[그림 18] 2010년 서울 및 전국의 실업률 전망

## IV. 시사점 및 정책 제안

### 하반기 서울경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률로 복귀하는 과정

- 서울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성장세 다소 주춤
  - 최근 3년간 서울의 연간 성장률이 3.4%인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에 예상되는 2.7%의 성장률은 상반기에 비해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
  - 즉, 상반기 성장률은 작년 경기침체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효과가 상당하고, 서울시와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에 힘입은 성과로 해석
  - 하반기 서울경제는 금융위기 이전의 정상적인 성장률 수준(mean reverting)으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해석
- 서울의 산업생산과 기업 경영 여건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 여건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서울의 산업생산은 1/4분기 5.6% 성장하였고 기업의 경영 실적과 전망이 모두 개선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회복세를 이어 가겠지만 자본재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여 성장 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1/4분기 서울의 취업자 수가 다소 증가하였지만 3/4분기 서울소재 기업의 고용 전망이 상반기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에도 고용 여건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따라서 하반기 서울경제의 주안점은 성장률 둔화가 성장력 약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책적 측면에서 성장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책 발굴이 필요

## 서울경제 성장 탄력 유지를 위한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이 우선

- 서울시 성장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식 기반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
  - 서울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의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중 지식기반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
    -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경영안정 자금 지원 등과 같이 운영자금 지원 중심의 시책에서 기술 혁신을 위한 R&BD 지원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
- 경기 회복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책과 여건 마련에 역량 집중
  - 경제 여건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서울시 차원의 청년실업 대책 및 관련 정책을 강화할 필요
    - 현재 시행 중인 '2030 청년창업기업 지원정책'의 대상과 지원 폭을 확대하고, 관내 대학 등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청년실업문제 극복을 위한 노력에 정책적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더불어 '서울형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
    - 단기 실업대책으로 활용되었던 정부정책(공공근로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중장기 대안으로써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취약계층 일자리가 창출·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 서울시 차원의 재정지출 합리화를 추구할 필요
  - 하반기 이후 국내적으로 출구전략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 차원에서 그동안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되었던 재정 지출과 각종 사업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재정 합리화를 추구할 필요
  - 특히 유럽국가의 재정 위기를 계기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 현재 자금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들을 재검토해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와 아울러, 기술 혁신 등 생산 활동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재원의 재조정 등 시책 전환도 고려할 필요
  - 신규 재정사업 및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27  
hspark@sdi.re.kr

**윤형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31  
younh@sdi.re.kr

**김범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76  
kbs@sdi.re.kr

## 부록: 2010년 2/4분기 주요 조사결과

<부록: 표 1>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 형편		경기 판단		구입 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09년 2/4분기	95.6	79.0	110.9	67.5	116.3	104.1	107.2
2009년 3/4분기	101.9	84.6	113.9	87.3	121.9	101.5	101.9
2009년 4/4분기	101.1	86.9	109.6	88.0	116.6	104.3	95.9
2010년 1/4분기	100.0	87.7	108.8	84.3	116.6	102.6	96.5
2010년 2/4분기	99.2	88.7	112.3	83.1	113.2	99.0	92.6

<부록: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09년 2/4분기	82.8	86.9	91.7	93.9	147.5
2009년 3/4분기	89.3	88.0	96.8	102.1	145.4
2009년 4/4분기	91.7	91.1	98.1	101.3	144.8
2010년 1/4분기	92.2	94.2	97.3	98.3	145.9
2010년 2/4분기	94.2	98.7	98.4	104.7	151.0

<부록: 표 3> 서울지역 기업경기지수

구 분	실적					전망				
	'09 2/4분기	'09 3/4분기	'09 4/4분기	'10 1/4분기	'10 2/4분기	'09 3/4분기	'09 4/4분기	'10 1/4분기	'10 2/4분기	'10 3/4분기
매출	94.3	91.3	99.4	99.4	106.2	87.2	98.7	99.9	103.0	110.3
내수	92.3	91.3	99.9	99.9	106.5	91.6	97.8	99.8	102.8	110.6
수출	97.1	93.2	100.8	100.8	93.8	88.3	100.8	99.4	107.9	96.8
생산	101.2	100.5	104.6	104.6	102.0	87.6	102.9	106.7	113.4	105.0
설비가동률	87.3	95.1	97.4	97.4	100.4	87.3	90.5	105.3	104.0	104.1
설비투자규모	102.8	94.7	93.3	93.3	99.0	112.0	100.4	100.9	98.1	105.2
경상이익	90.2	92.4	90.3	90.3	102.7	87.2	93.6	101.3	92.7	107.4
자금사정	93.7	95.4	90.9	90.9	96.4	94.8	95.2	99.3	98.5	99.6
제품재고	104.9	105.8	105.8	105.8	97.8	112.0	104.1	104.4	107.7	100.5
종사자 수	94.3	97.8	95.1	95.1	92.4	99.7	95.0	98.1	93.7	94.4

본 조사는 2008년 3/4분기 이후 서울지역 표본 1000가구와 5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표본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3.1%임. (2010년 2/4분기 조사 시점은 2010년 5월 말)